

## 한화그룹, 사업구조개편 단행

## 사업군별 '선택과 집중'... 각 계열사 전문화·경쟁력 강화

한화오션, 해상풍력·플랜트사업 양수  
한화솔루션, 태양광 장비 사업 인수  
(주)한화, 모멘텀부문 물적분할 단행  
2차전지 장비사업 초점 독립 경영

한화그룹이 사업군별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일부 사업부에 대한 계열사간스물뮬을 추진한다.

한화그룹은 (주)한화의 일부 사업을 한화오션과 한화솔루션에 양도하고 모멘텀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사업 구조개편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한화오션은 (주)한화 건설부문의 해상풍력 사업과 글로벌부문의 플랜트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 (주)한화 모멘텀부문은 물적분할하고 태양광 장비 사업은 내재화를 필요로 하는 한화솔루션이 이를 인수한다.

이는 사업군별 전문화를 추진해 각

계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한화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도 함께 제고하기 위해서다.

(주)한화는 자체 사업인 글로벌부문의 고부가소재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사업군별 전문화·계열화 강화로 자회사들의 기업가치 증대 및 자회사 성장을 통한 배당수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해상풍력·플랜트 사업 양수로 경쟁력이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주)한화 건설부문의 EPC(설계·조달·시공) 인력 등을 확보하며 기본설계 능력과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사업 개발에서 발전 및 전력 판매에 이르는 해상풍력 밸류체인도 완성한다.

한화솔루션도 (주)한화 모멘텀부문의 태양광 장비 사업 양수로 차세대 태양광 기술 관련 장비 개발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태양광 장비 관련 사업 수직계열화를 통해 고객 신뢰도 제고는 물론,

신규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룹 내 흔재되었던 태양광 사업을 한화솔루션으로 집중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태양광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주)한화는 모멘텀 부문에 대한 물적분할도 단행한다. (주)한화의 100% 자회사인 한화모멘텀을 신설해 2차전지 장비 사업 전문화를 추진한다.

한화모멘텀은 태양광 장비 사업의 한화솔루션 양도와 맞물려 오롯이 2차전지 장비 사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 경영을 이어간다. 100% 자회사로 분할되는 한화모멘텀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향후 최소 5년 간 상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양도 및 물적분할 안건은 5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7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정보통신, 롯데이노베이트로 사명변경

롯데정보통신이 공식적으로 사명을 롯데이노베이트로 바꾼다.

롯데이노베이트가 2일 서울 가산동 본사에서 사명 선포식을 가졌다. 새 사명 '롯데이노베이트'는 한정됐던 사업 영역에 확장성을 더하고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두영 대표는 "신규 사명은 새로운로의 변화와 끊임없는 도전을 의미한다. 혁신은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행하는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실행력을 당부했다. /롯데이노베이트

## 르노코리아, 사명·차명·엠블럼 모두 교체

'르노 누벨 바그' 기자간담회  
새 브랜드 전략 '일렉트로 팝'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과거 사명과 차명, 엠블럼 등을 모두 바꾸고 '르노코리아'로 새롭게 거듭난다.

르노코리아는 3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르노 성수'에서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 전략과 신차 계획을 소개하는 '르노 누벨 바그'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르노코리아는 이날 간담회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하고 공식 엠블럼도 다이아몬드 형상의 '로장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전략인 '일렉트로 팝(Electro Pop)'을 통해 국내 시장에 르노만의 독창적인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르노가 제안하는 새로운 물결이 한국에 다다랐다"며 "이제 국내 고객들도 글로벌 르노 브랜드만의 차량과 서비스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르노코리아가 보유한 뛰어난 생산 및 연구개발 자산을 바탕으로 르노의 DNA에 한국의 역량을 더하겠다"며 "우리는 이를 '프랑스 생, 한국 산

(Born France, Made in Korea)'이란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르노코리아는 일부 모델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엠블럼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M3는 해외 판매분과 똑같이 아르카나로 변경하고 중형 SUV QM6는 이름 그대로 두되 엠블럼만 바꾸기로 했다. SM6의 경우 향후 차량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모델명과 엠블럼 모두 기존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볼보 CMA 플랫폼을 가져와 개발 중인 중형 SUV 신차(프로젝트명 오로라)는 새 엠블럼을 적용한다.

새 브랜드 전략은 '일렉트로 팝'이라고 명명했다. 전동화·커넥티비티·안전 기술 등을 기반으로 고유의 소비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서울 성수동에 국내 첫 플래그십 매장 르노 성수를 열었다. 기존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로 운영하던 공간으로 카페·팝업스토어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컨셉으로 구성했다.

이날 르노코리아는 국내 생산 모델과 수입 모델을 함께 운용하며 매년 한대의 신차를 국내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신차 계획도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 카카오, 쇠신한다더니... '논란인사' 선임 강행

류규선 대표·정규돈 CTO 내정  
과징금 부과, 스톡옵션 행사 전적  
노조 "의사결정체계 기형적" 등 지적

카카오가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인사들을 선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류규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를 연임하고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본사 CTO로 공식 선임했다. 이들은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류 대표와 정 CTO의 내정 사실이 알려진 후 카카오 내 직원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식 임기 시작 후 카카오 직원들은 계속해서 요구했던 개선 핵심 사안인 의사결정체계 및 조직구조 쇠신이 도덕적 해이로 문제를 일으킨 대표진과 가능하겠냐고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가 2020년 3월부터 단독 대표를 맡는 동안 수십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다. 지난 2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과징금 90억원을, 지난해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른바 '카카오 콜 차단·몰아주기'로 27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는 상장 직후 대량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기업 내부자 주식 거래를 공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의 원인이 됐다. 상장 3일 후와 2주 후 그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매도 수익은 76억원에 달한다.

이에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인 크루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전달했다.

카카오노조 관계자는 "임원에 대한 선임과 검증 절차를 공식화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대상을 미등기임원까지 확대하고 임원의 변경, 선임 사유에 대해 조직 내에 명확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은 모든 영역에서 쇠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몇몇 계열사 대표만 교체했다.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형적인 의사결정체계 ▲기준없는 평가제도 등의 조직문화를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을 포함해 경영진과 직원 간 대화는 지난해 12월 기준 1년이 넘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카카오에 10여 년 근무한 직원 이모(34)씨는 카카오 내부에서 이뤄지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언제나 임원들만의 논의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직문화 쇠신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노조원은 "출산·육아 휴가를 다녀온 직원들을 셀·파트(부서)에 보내는 등 업무 연관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의사결정권자의 업무 범위, 권한, 책임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현대차, 유일한 택시전용 중형세단 출시

쏘나타 택시, 내구성 2배 강화

쏘나타 택시현대자동차는 3일 내연기관 중형 세단 중 유일한 택시 전용 '쏘나타 택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쏘나타 택시는 가혹한 주행 환경을 고려해 일반 차량 대비 약 2배 강화된 내구 시험 과정을 거쳤다.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스마트스트림 LPG 2.0 엔진, 택시 전용 6단 자동변속기, 일반 타이어 대비 약 20% 내구성이 강화된 타이어를 적용했다. 기존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대비 휠베이스를 70mm 늘려

더 넓은 2열 공간을 제공한다.

9에어백 시스템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기본 적용되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도 탑재했다.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가 중국에서 제작한 차량으로 계약·출고 과정, A/S 등 구매 제반 사항은 내수 생산 차량과 동일하다.

현대차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용품 업체와 협업해 택시 표시등과 빈차등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택시 표시등'을 함께 선보인다.



현대차 쏘나타 택시.

쏘나타 택시의 판매 가격은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 택시 기준 2480만원 ▲개인택시(간이과세자, 면세) 기준 2254만원부터 시작하며, 플랫폼 운송사업자 및 영업용 택시 사업자에 한해 판매한다. /양성운 기자 ysw@

## SKB, 글로벌 금융통신 인프라 구축 협약

한국자금융재와 '맞손'

SK브로드밴드는 한국자금융재와 글로벌 금융 통신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자금융재는 금융기관 간 외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단기자금 및 외국환중개 회사다.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지점 개설 없이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는 장소인 해외거점(POP)을 런던과 싱가포르에 구축했다. 해외거점은 비유하자면 물류센터로 해외에 전진 배치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또한 국내의 금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외 지점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자금융재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제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 장비임대 및 유지 보수 등 국제 통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도 통합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